

소단원 험성 평가

03 02 03 04 05 06 07 08

07 ④ 08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활용되어야 한다.

01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특징과 정체성을 보는 관점 국민을 보는 관점, 청탁 특표 기술의 방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02 경제인은 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치인은 대안 정책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03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인이다.

04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쓰인 '논리'는 '사물 속에 있는 이치,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기업 논리', '법의 논리', '수오와 공급의 논리'와 같은 식으로 쓰이므로 ⑤의 '영국 경제의 논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 풀이

①~④ 모두 '말이나 글에서 시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05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06 이 글은 정치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과 경제는 리를 내세우는 경제인의 예를 들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 풀이

① 1문단에서 경제인이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경제인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충시하기 때문

에 뇌도록 각광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영향력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 전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미연히 막았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정치인이 세한된 지원의 분배를 들려싸고 이익 집단 간에 쟁기는 미사를 해소하는 경향에서 정체 목표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01 글쓴이는 드래퓌스가 날조된 증거와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당한 계판을 받았으며 진범은 에스트라

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02 1문단에서 경제인은 효율성이 원칙에 따라 정체를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제언	평가 기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활용되어야 한다고 씀.	정체를 기준으로 정체를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씀.
한 문장으로 씀.	

03 <보기>에서는 당시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에국주의적 윤리기기 시회를 뒤덮고 있었고 반유대주의의 여론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래퓌스를 범인으로 몰고 간 데에는 미국 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풀이

①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에국주의적 윤리기기 시회를 뒤덮고 있었고 반유대주의의 여론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래퓌스를 범인으로 몰고 간 데에는 미국 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풀이

04 글쓴이는 영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편지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음을 들어 영세서로는 드래퓌스에게 죄가 있음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풀이

04 피카르 중령은 자신이 보고한 바를 자신의 칙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로 장군과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다. 메르시에 장군은 비요 장군 이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 이므로 피카르가 조사한 내용을 메르시에 장군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05 비요 장군은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오른 인물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경우 여론이 공포와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06 서술형 | 비요 장군의 국방부 최고 결정권자로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제언	평가 기준
비요 장군을 연금함.	비요 장군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임을 말함. 정의를 외면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과적으로 서술함.

소단원 험성 평가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비요 장군은 계획을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크다.

정답과 허설 3. 독서의 틀아이 (2) 사회·문화·분야의 글 읽기②

소단원 험성 평가

01 ② ③ ④ ⑤ ⑥ ⑦ ⑧

07 ④ 08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활용되어야 한다.

01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특징과 정체를 보는 관점 국민을 보는 관점, 청탁 특표 기술의 방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02 경제인은 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정치인은 대안 정책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03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인이다.

04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쓰인 '논리'는 '사물 속에 있는 이치,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기업 논리', '법의 논리', '수오와 공급의 논리'와 같은 식으로 쓰이므로 ⑤의 '영국 경제의 논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 풀이

①~④ 모두 '말이나 글에서 시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05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06 이 글은 정치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과 경제는 리를 내세우는 경제인의 예를 들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 풀이

① 1문단에서 경제인이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경제인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충시하기 때문

에 뇌도록 각광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영향력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 전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미연히 막았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정치인이 세한된 지원의 분배를 들려싸고 이익 집단 간에 쟁기는 미사를 해소하는 경향에서 정체 목표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01 글쓴이는 드래퓌스가 날조된 증거와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당한 계판을 받았으며 진범은 에스트라

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02 1문단에서 경제인은 효율성이 원칙에 따라 정체를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제언	평가 기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활용되어야 한다고 씀.	정체를 기준으로 정체를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씀.	

03 <보기>에서는 당시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에국주의적 윤리기기 시회를 뒤덮고 있었고 반유대주의의 여론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래퓌스를 범인으로 몰고 간 데에는 미국 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풀이

①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에국주의적 윤리기기 시회를 뒤덮고 있었고 반유대주의의 여론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래퓌스를 범인으로 몰고 간 데에는 미국 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풀이

04 글쓴이는 영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편지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음을 들어 영세서로는 드래퓌스에게 죄가 있음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풀이

04 피카르 중령은 자신이 보고한 바를 자신의 칙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로 장군과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다. 메르시에 장군은 비요 장군 이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 이므로 피카르가 조사한 내용을 메르시에 장군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05 비요 장군은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오른 인물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경우 여론이 공포와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제언	평가 기준
비요 장군을 연금함.	비요 장군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임을 말함. 정의를 외면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과적으로 서술함.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비요 장군은 계획을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크다.

01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특징과 정체를 보는 관점 국민을 보는 관점, 청탁 특표 기술의 방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02 경제인은 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정치인은 대안 정책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03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인이다.

04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쓰인 '논리'는 '사물 속에 있는 이치,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기업 논리', '법의 논리', '수오와 공급의 논리'와 같은 식으로 쓰이므로 ⑤의 '영국 경제의 논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 풀이

①~④ 모두 '말이나 글에서 시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05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06 이 글은 정치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과 경제는 리를 내세우는 경제인의 예를 들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 풀이

① 1문단에서 경제인이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경제인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충시하기 때문

에 뇌도록 각광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영향력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 전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미연히 막았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정치인이 세한된 지원의 분배를 들려싸고 이익 집단 간에 쟁기는 미사를 해소하는 경향에서 정체 목표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01 글쓴이는 드래퓌스가 날조된 증거와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당한 계판을 받았으며 진범은 에스트라

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02 1문단에서 경제인은 효율성이 원칙에 따라 정체를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제언	평가 기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 활용되어야 한다고 씀.	정체를 기준으로 정체를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체 효과를 기준으로 정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경제인이 정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씀.	

03 <보기>에서는 당시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에국주의적 윤리기기 시회를 뒤덮고 있었고 반유대주의의 여론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래퓌스를 범인으로 몰고 간 데에는 미국 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풀이

①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에국주의적 윤리기기 시회를 뒤덮고 있었고 반유대주의의 여론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래퓌스를 범인으로 몰고 간 데에는 미국 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풀이

04 글쓴이는 영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편지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음을 들어 영세서로는 드래퓌스에게 죄가 있음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풀이

04 피카르 중령은 자신이 보고한 바를 자신의 칙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로 장군과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다. 메르시에 장군은 비요 장군 이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 이므로 피카르가 조사한 내용을 메르시에 장군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05 비요 장군은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오른 인물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경우 여론이 공포와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제언	평가 기준
비요 장군을 연금함.	비요 장군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임을 말함. 정의를 외면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과적으로 서술함.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비요 장군은 계획을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가장 책임이 크다.

01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특징과 정체를 보는 관점 국민을 보는 관점, 청탁 특표 기술의 방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02 경제인은 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정치인은 대안 정책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03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인이다.

04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쓰인 '논리'는 '사물 속에 있는 이치,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기업 논리', '법의 논리', '수오와 공급의 논리'와 같은 식으로 쓰이므로 ⑤의 '영국 경제의 논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 풀이

①~④ 모두 '말이나 글에서 시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05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06 이 글은 정치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과 경제는 리를 내세우는 경제인의 예를 들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 풀이

① 1문단에서 경제인이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경제인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충시하기 때문



대단원 종합 평가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인간

이 본래 착한 존재라면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가 필요 없으므로 맹자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07 ⑤ 08 ④ 09 ③ 10 ② 11 ① 12 ②

13 ② 14 ④ 15 ③ 16 토양의 미생물 가운데

결핵균과 같은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것이다. 17 ④ 18 ④

19 빅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통해 사전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01 (나)와 (다)는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르누아르의 대표작들로 그의 작품세계를 뚜렷하게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작품들이다.

오답 풀이 |

②, ③ (나)와 (다)는 모두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였던 르누아르의 대표작이다.

④ (가)에서 르누아르는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후에도 삶에 변화가 없었다는 말에 그의 화풍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나)와 (다)가 그의 화풍 변화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⑤ (다)의 <기타를 연주하는 소녀>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대상이 아닌 일상의 소녀를 통해 싱그러운 젊음을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다.

02 (다)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는 우울한 분위기의 정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가 생기가 넘친다고 하였다. 붉은 기가 도는 소녀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03 이 글을 통해 르누아르는 환상적 체험을 형상화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04 (나)는 순자가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누어 살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대상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살피며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했습니다.', '~한 것일까요?', '실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등 구어체와 같이 표현하여 친숙한 느

낌을 주고 있다.

④ (가)와 (다)에서는 '순자'를 '맹자'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05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 정, 려, 위'의 네 부분으로 나누고,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위'에 그 가치를 두었다.

오답 풀이 |

①은 사람의 본성인 '성' 단계의 상황이다.

②는 감정이 생기는 '정' 단계의 상황이다.

③은 감정이 생긴 뒤에 선택하는 단계의 '려'의 상황이다.

④는 선택이 끝난 뒤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 실천 단계인 '위'의 상황이다.

06 서술형 |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본래 착한 존재이며 에초부터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 따위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확인	평가 기준
	맹자를 비판하고 있는 근거로 '훌륭한 임금이나 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함.
	맹자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들어 비판함을 언급함.
	60자 내외로 서술함.

07 (가)~(라)는 모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또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대립적 속성을 비교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에는 개념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라) 모두 구체적 사례를 통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않다.

③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때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라)뿐이다.

④ (가)~(라) 모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않다.

08 (나)를 보면 정책 결정 시 투입되는 예산을 중시하는 입장은 '정치인'의 입장이다. 또한 경제인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제작자 김민기	제작일 2018.05.15	제작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자 김민기	제작일 2018.05.15	제작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9 **나이를** | **한국고극** **신을** **죽을** **죽을** **죽을** | **나이** **나이** **나이**
나이를 | **한국고극** **신을** **죽을** **죽을** **죽을** | **나이** **나이** **나이**

- 국의 흐름이 누가 더 유익한지를 알게 된 것이다. ③
국가가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금본位제를 채택하는 ④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면모이다. ⑤

18. **한국의 학제적 협력 체계 구조화에 대한 연구**

한국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	

15

한국의 고고학과 고고학의 한국 ||| 고고학과 고고학의 한국 ||| 고고학과 고고학의 한국

14 회고록|| 회고록|| 회고록|| 회고록|| 회고록||

(4) 국사기에서 기록된 사례를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한을 침략하자, 당시 국방부 장관인 윤보선은 즉각 전쟁준비를 명령하고, 국군을 동원해 전쟁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 이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엿보인다.

12 (7)이나, 2. 제작권자 이름을 표기한 작품 제작자는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한국어판은 2010년 10월에 출판되었습니다.

국가를 두고서 ① (국가를 두고서) ② (국가를 두고서)

